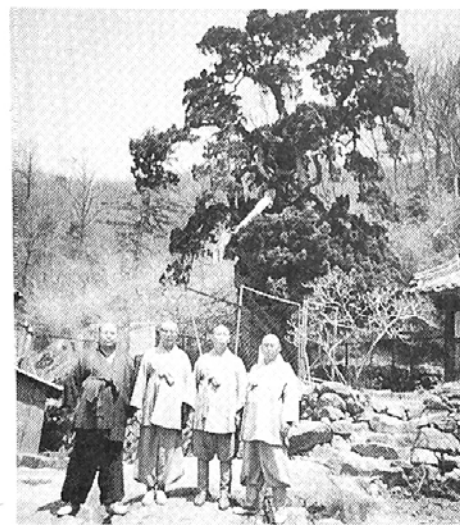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한생각 돌려보세요



보조국사 지능의 제자 담당국사가 쓰던 지팡이를 찾아 큰 나무가 되었다는 쌍향수(雙香樹) 앞에서 84년 도반스님들과 함께한 출안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

어나자마자 부처님께 삼배하고 도를 달라고 발원했습니다.

이곳에서 50살 되던 해부터 살았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처럼 선지식을 찾아 다니지는 못하지만 참선수행은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왔으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맛도 있지만 탐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 가는 대로 참선하는 것이 지금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되는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예불준비를 하고 기도장군을 합니다. 잠이 깨야 하루 3시간 정도 밖에는 안 잤습니다. 수행자는 터럭만큼의 안일함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가 게으른 늘 문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할 때는 후상같이 하면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인데 출가한지 오래되고 나이 많다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수행자라 부르겠습니까. 스님이 문턱을 두고 생활하면 아상(我相)만 높아지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생사(生死)와 같아서 전후고

“겉으로 고상한척 하는 지도자들
용맹 부족하여 뇌물에 혹하니
국운이 강해질리 없습니다”

나. 매일 앉아서 쓸데없는 망상으로 세월을 보내려 하지 말고 간절한 노력으로 '이렇고'를 참구하면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음성도 모두 잊게 됩니다. 화두 일념이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되면 천사만 사람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법입니다.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를 지배하는 참주인공이 무엇입니까. 알념으로 빼어 사무치고 오장육부를 찌르는 대의심으로 화두를 꿰고자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공부와 무관하여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하루 한생각만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선 수행자에게 이르러나 생각생각에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간의 모든 것이 한마음을 좇아 생겨나니 미물을 생각하면 곧 미물이요, 축성을 생각하면 곧 축성이며, 부처의 마음을 내면 곧 부처인 것처럼 마음은 참으로 미묘한 것입니다. 한생각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본고향에 도달하니 생각생각에 화두를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화두를 놓치는 순간 곧 한생각이 일어나니 한생각 일어남이 무명이고 업의 굴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생각생각 일념으로 간절히 생멸 미생전 사심(生滅未生前 是無夢) 나고 죽는 이전의 나는 이 빛(光)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행하면서 늘 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부족하다 싶은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년 1백일 폐관(閉關)정진에 들어갑니다. 현자암에 온지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어찌 시간과 노력을 아끼겠습니까.

범계락을 하려고 찾아가는 제방의 수좌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장님이 눈 뜬사람을 그리려면 그려지느냐 집어치워라.” 그러면서도 화두 하나를 던져 줍니다. “죽는게 옳은가 사는게 옳은가.”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我)가 공(空)해야 바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도를 닦든지, 열물을 하든지 제불성현과 똑같이 밝은 지혜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동안 참선을 해도 진전이 없는 것은 일념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등 시국이 어수선한데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답 본래 우리는 공심 공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내것이 다를 고집하고 남을 불라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답 본래 우리는 공심 공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내것이 다를 고집하고 남을 불라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답 본래 우리는 공심 공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내것이 다를 고집하고 남을 불라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등 시국이 어수선한데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게
독자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성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답답해 드립니다. 이 자문상담은 조계종 중앙신선대학신선과 종교 상담실에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답 본래 우리는 공심 공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내것이 다를 고집하고 남을 불라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답 본래 우리는 공심 공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내것이 다를 고집하고 남을 불라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계산에 속지 않는것이 마음공부 시작
“문턱 두고 생활하면 아상만 높아집니다”

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36살때 일이지요. 그때는 참선수행을 하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손수 마련해 먹었습니다. 어느날인가 해가 넘어간줄도 모르고 눈에서 일을 하다가 낮으로 손을 베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방에 들어와 옷불을 꺼보니 방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더군요. 손을 동여매고 부엌에 들어가 찬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자니 쓸쓸한 마음이 낙엽 날리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척이나 되는 여래신이 나타나 자신의 오른팔로 배개를 삼아 나를 낚고는 내게 “과거의 제불, 오늘의 제불이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미래의 제불도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허기진 차에 밥을 먹고나니 잠시 졸았던 것입니다. 나는 일

저(前後高低)가 있을 수 없으니 어찌 수행에 계엄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비단 출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을 사는 사람들도 세속법으로는 수행자인 셈이고, 따라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과정은 밝거나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성장과정은 변하지 않는 내 마음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결성하고 노력하면 생산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노력과 공로는 남비되지 않고 목표에 밀거름이 됩니다. 연연에 풀방울 도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궁극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충효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용맹이 부족하니 남의 돈 받아먹고 오리발이나 내밀고, 생활질서를 문란시키니 국운이 강해질 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밖에요.

국가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한 뼘을 먹을 쌀도 한지자의 질서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면 그것이 곧 우주성현에 공양올리는 일이고, 국운을 부강시키는 것입니다. 또 몸이고 정신이고 건강해야 수행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어릴적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심신이 하나로 합쳐져 성성하면 모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동안 참선을 해도 진전이 없는 것은 일념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한영우 기자

부처님오신날 범포시용 소책자
부처님의 생애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석가모니부처님의 감동적인 일대기를 인도 현지의 원색사진들과 함께 편찬한 불교신행의 길잡이.
가격표
품명 가격 규격
현수막(6m) 40,000원 600x90cm
현수막(8m) 50,000원 800x90cm
현수막(10m) 60,000원 1,000x90cm
봉축어깨띠 2,500원 10x180cm
봉축버튼(100개) 40,000원 직경 55mm
부처님의 생애(책) 1,500원 국판 68면(원색)
문의처: 포교사업팀 (02)705-5305~7
서울 (02) 718-4625~9 (02) 719-7115~6
광주 (062) 228-5114 (053) 427-5114
대구 (053) 744-0032 (0431) 211-2090
원주 (0371) 763-8575, 0857 제작/일련불교 (02)739-0108
전화문의 시시는 사찰에는 건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합의를 사용하세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뱃살이 겹겹이 걸린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 갑상선 이상통과 있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